

7월의 기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장 5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7년 8월 29~30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홍콩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끼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기창,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오주봉, 원소선, 이금란, 정경자, 최인철, 한사관순복음교회 박유성목사님, 함석숙 또한,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고,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소망을 꺼버리려고 해도 도무지 소망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계시고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였으니 어떻게 소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좋아진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루에 2만 5000마디 말을 하고 여자는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 소망의 말을 사용하면 할수록 소망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과거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빛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걸사람은 절대 절망의 사람입니다. 절대 절망의 사람인 우리는 이미 2000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청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 죽, 영의 사람이 거듭나 살아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une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엠파워드 21 싱가포르 대성회

오직 성령충만이 성공적 목회의 '첩경' 다음세대 주역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 심어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지난달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엠파워드21 아시아총회를 겸한 성회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다.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 주관으로 싱가포르 엑스포 제2홀에서 열린 이번 성회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은 물론 미국과 아프리카 등지의 온 목회자들과 성도, 특히 청년들이 참석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한번 싱가포르에서 일어나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성령운동기수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뜻에서 이번 성회 주제를 오순절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바람과 불'로 정했다. 이번 성회 대표대회장 니코 노토하라조 목사(인도네시아GBI), 공동의장 로렌스 콩 목사(싱가포르 FCBC), 빌리 윌슨 목사(미국 오랄로버츠대학교 총장), 세자르 카스텔라노스(콜롬비아 G12), 대니얼 콜렌다 목사(아프리카) 등 세계적인 성령운동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성회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이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였다.

조용기 목사는 폐병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나는 당시 의사의 사망선고에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런 그 때 누님의 친구가 내게 성경을 주었다. 내가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나와 있었다. 나는 이전에 예수님은 종교인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다”며 “나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자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폐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했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사탄은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떠올리며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역에 힘써야 한다. 나는 이렇게 약 60년을 목회했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공적인 목회에는 다른 것 없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천막교회시절부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목회한 결과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위대한 꿈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당

부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깜짝 이벤트가 있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한 로렌스 콩 목사, 니코 목사 등 엠파워드21 임원 및 이사들이 먼저 강대상으로 나온 뒤 조용기 목사가 등단하자 엠파워드21 아시아총회 대표대회장 니코 목사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운동에 앞장 선 조용기 목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명예 메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해 빌리 윌슨 목사가 조용기 목사를 통해 전 세계에 성령운동이 보급되고 나아가 세계 최대교회를 세우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용기 목사의 앞으로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는 엠파워드 21 관계자 및 성회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랄 로버츠 박사의 조언에 따라 세계선교에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성회를 마무리하며 니코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이번 성회 참석과 특별한 메시지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성회를 계기로 아시아의 성령운동 하는 교회들이 더욱 부흥하고 발전해 세계복음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린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략)...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15절)

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니 그 꿈과 환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니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끊임없이 오늘로 다가오는 것이므로, 성공한 내일을 오늘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가족들이라도 서로 모여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가족은 가족 중에도 성공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가족이 지만 성공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달리해서 마음속에 천국의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2.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생수이다

유명한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는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지니는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므로,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도와주었다, 여러분의 생활이 고달프고 괴로웠다, 그런 것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도울 힘이 없어도 하늘나라 부모는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부모는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꿈 꾸던 사자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저의 학식이나 지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면서 생각 속에 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아버지께서 꿈꾸고 생각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를 보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손에 있는 바통을 ‘이영훈 목사에게 전해줘라’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더 크게 이루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내면 이영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주 즐거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고통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나 불신앙과 같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십자가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9-12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 벌리고 나가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껴안으면 병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껴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껴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껴안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지(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십자가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장 25-26절) 그 주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고 기도으로써 껴안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고 사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집도, 살아가는 모습도 따라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 나 삶의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동남아 일대에 성회 설교자로 초청되어 나가 보면,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저와 악수를 할 때 두말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하면 된다. 해보자!’하고 웃어요. 그럼 제가 “아,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라고 물으면 “당신이 우리가운데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줄 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을 자꾸 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설교자로 초청되어 싱가포르에 갔는데, 성회장이 1만 명 들어가는 시설이 있지만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TV 스크린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참석자들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대표들이 와서 “이번에 6만 명 모이는 장소를 빌랄테니 와 주십시오.” 한 지도자는 “100만 명이 모이는 장소를 준비할 테니까 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안가고는 저의 생각에 달렸습니다. 저 생각에 이제 나이도 많고, 늙고 힘이 들어서 못 간다고 생각하면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오라고 초청을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방해해 해도 내 마음 속에 “조용기, 하면 된다. 가보자.”라고 생각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웃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내일

엠파워드 21 성회 이모저모



엠파워드21은 창설된 2010년 이후 매년 전 세계 13개 지역 중 한 곳에서 성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싱가포르 성회는 물론 앞서 자카르타, 홍콩 등에서 개최됐다. 특별히 이번 성회에는 세대간의 대화를 위한 ‘세대g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3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해 참가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시간을 갖는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처음 선보였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6월 1일 대니얼 콜렌다 목사(Christ of All Nations 대표)와 조찬을 함께 했다. 대니얼 목사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오순절부흥사로 유명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의 사역을 잇는 대표적인 목

사로 본케 목사와 함께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이날 조찬에는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일본총회장, DCEM 사무총장)와 김종복 장로(4차원영성포럼회장), 한치완 선교사(순복음아세안총회장), 김용준 목사(순복음도봉교회) 등이 함께 했다.

엠파워드21 아세아총회가 열린 싱가포르 엑스포 제2홀은 성회 시작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별히 성령운동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참석자들의 기대감도 매우 컸다. 성회 한 구역에 마련된 강사들의 저서를 파는 곳에는 조용기 목사

의 4차원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성회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싱가포르 당국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성회 출입에 앞서 반드시 검문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성회는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탓에 통역봉사자들이 실시간으로 강사들의 설교를 각국의 언어로 통역했다. 성회에 준비된 자리는 총 6000석이었으나 일찍 마감될 정도로 기대가 큰 성회였기에 봉사자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한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힌두어 등 총 9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 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홍콩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 (Blessing Hong Kong Miracle Conference)

홍콩 특별행정구가 반환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년간 홍콩인들은 함께 노력해 기회를 창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20년간 홍콩은 ‘일국양제(壹國兩制)’에 성공했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동방의 진주’의 지력을 보여주었다.

‘일국양제(壹國兩制)’는 일개국가양종제도(一個國家 兩種制度)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뜻한다. 사회주의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환수하여, 이들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번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간 홍콩에서 ‘홍콩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강사로 말씀 전할 예정이다.



이번 성회는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이 주관하고 홍콩 교회 연합이 주최하여 열리게 되었다. 성회 코디네이터이자 홍콩 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인 류진성 목사(Yuen Long Kam Kwong 교회 담임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홍콩 방문을 교회지도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류진성 목사는 “홍콩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홍콩을 축복해 주시

고, 많은 교회들이 더욱 부흥 발전해 나아가기를 꿈꾼다”고 고백했다.

홍콩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는데,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불교도가 21.2%, 도교도가 14.1%로 불교와 도교 사원이 600여개 정도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성회에 강력하게 일어나 홍콩의 영적 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한다.